

## 제 99 회 일본 전문가 초청 세미나 (09.04.13)

### 동맹이론의 한국적 수육, 순위협론, 그리고 한일관계

윤대룡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연구전임강사

동맹이론을 넓은 의미의 연합현상에 적용하면 국가간의 협력이나 갈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동맹이론은 국가행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동맹이론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경우만, 예시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한국과 주변국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론을 전면적으로 원용한 경우, 혹은 부분적으로 적용한 경우, 기존의 이론을 그대로 이용한 경우,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동맹형성 및 유지에 관한 다양한 개념과 이론들이 한국학계에도 널리 수용되어 한국, 북한, 그리고 그 주변국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동맹이론과 한일관계에 관한 본 연구가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미지수이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정치학적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서구의 이론과 한국적 현실의 상호작용(Mutual fertilization)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이론을 개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을 새로운 이론형성의 근거로 삼으려는 보다 능동적인 학문적 자세에로의 변화가 요구 된다.

#### <Q&A>

Q. 순위협론은공동위협과 그에 대항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자원과의 차이로 남는 위협이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순위협론이 어떻게 균형론/공공재론이 모순 혹은 분절성을 해결하는가?

A. 우선, 스나이더의 방기/연루공포의 딜레마 = 균형론/무임승차론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 스나이더가 말하는 딜레마를 사실은 딜레마라기 보다는, 국가 A 가 공동위협보다는 순위협에 반응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이미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도 순전히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는 이미 상당한 비용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